

- 2026 년 4 월 속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1. 환영과 인사: 속장

2. 찬송: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새 461/통 519)

3. 시작 기도: 속원 중

4. 감사의 고백과 나눔: 속원들이 돌아가면서 지난 한달 동안 하나님께, 가족과 성도들에게 감사한 내용을 나눕니다.

5. 성경읽기: 마가복음 8:31-38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예수께서 드러내 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바싹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 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음란하고 죄가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싸여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6. 본문의 내용

예수님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처음으로 말씀하십니다.

방금 전에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는 즉시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꾸짖음)합니다. 베드로가 기대한 메시아는 로마를 물리치고 큰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될

왕이었지 죽임 당하는 종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같은 베드로의 모습을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것,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십자가 고난을 통과하는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진정한 제자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제자도의 길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입니다. 자기 부인은 내 인생의 주인 노릇 하려는 자아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단순히 삶의 고난을 참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내가 기꺼이 감당해야 할 희생과 사명을 의미합니다.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세상은 많을 것을 가지고 쌓아 놓는 것이 성공이라 말하지만, 복음은 주님을 위해 나를 내어줄 때 진짜 생명을 얻는다고 가르칩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냉철한 경고입니다.

7. 나눔

나에게 있어 '자기 십자가'는 거창한 희생 이전에, 지금 내 결의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 기꺼이 감수해야 하는 '불편함'이나 내 감정이나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참고 말을 아끼는 것일 수 있습니다. 최근에 가정이나 일터, 또는 교회에서 주님을 위해 기꺼이 감당한 '불편함'이나 '참음'은 무엇인가요?

8. 합심기도: 함께 나눔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해서 기도한 후에 속장이 마무리 기도를 합니다.

9. 주기도문: 다같이

